

서슬퍼런 신군부에 화형 고했던 '광주의 아들'

다시 쓰는 5·18



2 전남대 총학회장 故 박관현 열사

법조인 꿈꾸던 청년, 들불야학 들어가 민주화 눈 떠
'민주화대성회' 마지막 연설, 시민 결집 원동력 역할
내란죄 5년형 선고...옥중 단식 끝 스물아홉 생 마감
문대통령, 37주년 기념식서 호명 진상규명 의지 밝혀



1980년 4월4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박관현 열사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우리가 민족민주화 햇불대행진을 하는 것은 이 나라 민주주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요. 이 햇불과 같은 열기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민족의 합성을 수습해 남북통일을 이룩하자는 뜻이며, 꺼지지 않는 햇불과 같이 우리 민족의 열정을 온누리에 밝히려는 뜻입니다.”

1980년 5월16일 옛 전남도청 분수대 앞 단상에 오른 20대 청년의 외침은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다. 박관현(5·18 당시 27세)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 광주시민들을 단시간에 사로잡은 그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의 촉발이자 항쟁 기간 시민들이 보여준 자치공동체의 자양분이 됐다.

'80총학'이라 불리던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의 반독재·반민주 투쟁은 5월 항쟁이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근간으로 꼽히고 있다.

80년을 경험한 세대들은 도청 앞 분수대에서 3차례에 걸쳐 열린 민주화대성회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다른 지역 학생운동과는 달리 광주시민들은 처음부터 80총학에 성원을 보내며 힘을 보탤었다. 그 배경에는 박 열사의 인기가 한몫했다.

1953년 영광군에서 5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 열사는 법조인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군 제대 후 3수 끝에 1978년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동기였던 정용화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모시웃에 검정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독특한 친구”라고 기억했다.



지난 2016년 옛 전남도청 분수대 주변에서 1980년 5월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한 햇불집회 모습(왼쪽)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관현 열사의 생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같은해 학원자율화운동이 일었고 운동에 뛰어든들던 정 이사장은 구속, 양강섭은 무기징역을 당한다. 셋은 '학생의 사회운동 참여 여부'를 안주삼아 거의 매일 막걸리를 나누는 사이였다.

같은해 학원자율화운동이 일었고 운동에 뛰어든들던 정 이사장은 구속, 양강섭은 무기징역을 당한다. 셋은 '학생의 사회운동 참여 여부'를 안주삼아 거의 매일 막걸리를 나누는 사이였다.

정 이사장은 “긴급조치 9호시대의 대학 현실을 보고 박관현이 친구들에 대한 부채

의식이 생겼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당시 총학생회 학술부장을 맡고 있었던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박관현 열사는 뚜렷한 이목구비, 단단한 체구, 수월한 말솜씨로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었다”며 “총학생회가 기획한 민주화대성회를 통해 광주시민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5·18 이전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민주화대성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햇불집회(1980년 5월16일)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야간집회였던 햇불집회는 광주시민들의 성원이 아니었으면 열리지 못했다. 안병하 전남도경장도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면 제지하지 않았다고 확답했다.



1980년 5월 '민주화대성회'를 재현한 햇불집회 모습(왼쪽)과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관현 열사의 생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햇불집회는 총학생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전두환·신현확·최규하 등 민주화를 가로막는 인사들을 화형에 처한다는 아이디어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광주시민들은 5월 14~15일 두차례 진행된 민주화대성회를 통해 박 열사를 '광주의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 두번째 성회가 끝나기 전 박 열사가 말했다. '내일 다시 도청 앞에서 만납시다'는 약속을 지켰다. 5만여명이 도청 분수대 주변에 운집한 가운데 하늘로 솟은 10여개의 햇불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대변했다.

하지만 '광주의 아들'은 5·18 때 광주시민과 함께하지 못했다.

5월17일 오후 5시께 서울에서 전국총학생회장단 회의가 경찰 급습으로 중단되고 다수 학생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즉시 대책회의를 열고 박 열사를 비롯한 집행부 일부는 피신하자고 결정한다. 이튿날 아침 박 열사와 만난 윤상원 열사(훗날 시민군 대변인)도 “일단 몸을 숨기는 것이 좋겠다. 너는 꼭 살아남아 학생들을 이끌어야만 된다”고 피신을 당부했다. 친한 선후배이자 학생운동의 분신이었던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박 열사는 여수에서 5·18을 지켜본 뒤 서울 이모집으로 거처를 옮긴다. 소급장사, 막노동, 섬유공장 생산직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다 1982년 4월5일 광주항쟁 수배자를 찾는다는 뉴스를 본 동료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내란죄 등으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광주교도소에서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40여일 간의 옥중 단식 끝에 같은 해 10월12일 새벽, 전남대 병원에서 숨졌다. 공식 사인(死因)은 심근경색이었다. 하지만, 그의 운명에 난고문 흔적을 본 사람들은 '단식으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신군부의 발표를 아무도 믿지 않았다.

박 열사가 세상을 뜨기 직전 특별면회를 통해 만났던 최 연구원은 직감적으로 그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을 느꼈다고 한다. 최 연구원은 “박관현 형은 같은 시기 수감됐던 IRA(영국령 아일랜드 무장단체) 지도자 보비 샌즈가 60일 단식으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자주 말했다”며 “이 형이 굉장히 큰 결심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혹자는 말한다. 박관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박 열사는 5·18 때 광주에 있었더라도 계엄군의 제1호 체포 대상이 될 것이 불보듯 뻔했다.

'민주화의 대부' 고(故) 홍남순 변호사는 박 열사를 가르켜 “민주·민중·민족의 성스러운 항쟁이 독재의 총칼에 짓밟히는 동안 은신으로 비껴서야 했던 열사는, 민중의 지도자이기에 부끄럼없는 생활을 했고, 투옥된 이후에도 처절한 단식 투쟁으로 순국하던 그 순간까지 광주항쟁의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5·18 이후 광주항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고통 받았던 박관현 열사는 지난 1998년 국립5·18민주묘지(1묘역 2-88)에 안장돼 5월 영령들과 함께 하고 있다.

민중통일과 민주화를 꿈꿨던 박 열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박 열사의 이름을 호명하며 5·18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관련 장학재단은 총 30명에게 장학금 1억5800만원을 수여하고 그를 기리고 있다.

“1982년 10월12일 3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다. 재소자 2천 명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겠으니 내 할 일은 다 했소. 어머니, 나는 죽어도 좋아요.”(박관현 유언)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